

**전일동향**

전일대비 10.70원 상승한 1,375.0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0.70원 상승한 1,37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70원 상승한 1,365.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장 초반 보험권에 머물렀으나, 달러 강세 흐름에 상승 전환했다. 매수 우위 분위기에 환율은 추가 상승하며, 1,375.0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3.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6.3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65.00	1375.70	1362.20	1375.00	1368.80
엔화	941.46	952.64	939.77	951.06	-	
유로화	1558.34	1581.18	1556.84	1579.14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8	-7.42	-16.17
결제환율(수입)	-1.33	-6.51	-14.37	-27.9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1,36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8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75.00) 대비 4.70원 하락한 1,367.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CPI 예상치 하회 등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5월 CPI는 전월비 0.1% 상승하며 예상치(0.2)를 하회했다. 근원 CPI도 0.1% 상승하며 예상치(0.3)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1%p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물가 둔화에 미국 10년물은 4.9bp 하락한 4.423%를 기록했다. 달러화는 낮은 CPI 및 트럼프의 연준 금리인하 압박 등에 0.42 하락한 98.64pt로 마감했다. 한편 3일 동안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기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호적 분위기의 미중 무역합의 소식은 원화 강세의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환율은 미국의 약화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증시 상승 기대감에 따른 외인 순매수세도 환율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결제 등 달러 실수요 매수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363.80 ~ 1374.00 원</b>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660.8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70원 ↓
	■ 美 다우지수 : 42865.77, -1.1p(0%)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40.4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449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